건강과 바이오토피아 충북

- 무병장수와 풍요로운 미래를 향한 충북의 꿈 -

이 원 종 충청북도지사

우리는 건강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일에만 정신없이 매달리다가 건강을 잃고 난 뒤 후회하는 사람들을 흔히 보면서 결코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음을 새롭게 느끼곤 한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을 실감해 본다.

다행히 최근 들어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 을 추구하는 웰빙 분위기로 친건강,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런 일이다.

태초부터 인류의 가장 오랜 꿈은 아마도 무병장수(無病長壽)가 아닌가 싶다. 시대의 빠른 변화와 발전과 더불어 인간은 이제 물질적 궁핍을 추방하고 풍요의 왕관을 쓰게 되었지만 수명의 한계, 즉 시계의 횡포는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게놈지도의 완성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인간 게놈을 이루고 있는 30억개에 이르는 염기쌍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지 밝혀진 것이다. 인류의 달 착륙에 견줄만한 현대과학의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간게놈지도의 완성으로 '인간의 수명이 머지않아 120세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다. 암과 파킨슨병 등 현재의 의학 수준에서 불치병 내지 난치병으로 불리는 질병들을 유전자 치료법으로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이러한 생명과학의 신기원은 인류사에 있어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에 이어 제4의 혁명이라는 바이오혁명으로 불려진다. 21세기는 바이오의 세기로서, 앞으로는 BT(Biotechnology, 생명공학)가 자원과 지식의 보고(寶庫)가 된다고 한다. 바이오테크가 갖고 있는 광대한 잠재력과 무한한 기술, 엄청난 경제효과로 인하여 지금 전 세계는 바이오테크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마치 지난날 유럽 열강들이 "더 멀리 더 빨리"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한 경쟁과도 흡사하다.

이러한 새로운 물결에 앞서 가기 위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BT를 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바이오토피아(Biotopia) 충북' 을 건설하기 위해 도정

을 집중하고 있다. '바이오토피아'는 '바이오테크놀러지'와 '유토피아'(Utopia, 이상향)를 합성한 말로 질병 없는 삶과 풍요로운 사회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02. 9. 24부터 한 달간 '생명 속의 생명'을 주제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하여 '풍요로운 세상과 무병장수의 꿈'을 온 국민과 함께 꾸었다. 유치원 어린이에서부터 전 세계의 과학자와 기업가에 이르기까지 생명에 대한 신비와 소중함을 일깨우고, 생명산업 발전의 긴요성을 함께 토론하였다. 예상을 뛰어 넘는 80여 만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방문함으로써 '국민교육의 장'으로서의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우리는 이 엑스포를 통하여 생명공학이 만들어 가는 세계, 즉 '바이오테크'의 경외스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난해 10월 27일에는 대통령을 모시고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과학분야 대규모 국가산업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착공하였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오송단지가 세계 유수의 바이오단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바이오코리아를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 오송단지를 통해 세계 유수의 바이오 기업을 유치하는 등 바이오 관련 산업을 중점 개발하고 육성해 나가고 있다.

생명공학과 관련된 질병관리본부 등 4개 국책기관과 생명과학기술원 등 4개 지원시설, 그리고 국내외 첨단기업과 민간연구소를 유치하여 동북아 최고의 바이오 메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도내 지역별 특성을 살려 화훼 · 기능성 식품권역 등 '바이오산업5대 권역'을 설정하고 경쟁우위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아울러 금년 10월 8일부터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바이오토피아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엠블렘도 정하고 체전성공을 위해 150만 도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가고 있다. 또한 독도, 백령도, 마라도에서 성화를 채화함으로써 생명의 근원인 바다에서 얻은 '생명의 불'로 영상화하는 등 환경과 생명을 존중하는 '바이오 체전'으로 치를 예정이다. 우리 도에서는 바이오엑스포에 이어 이번에 개최하는 전국체전을 통하여 21세기 성장동력이며 경제엔진인 바이오테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드높이는 또 하나의 '국민교육장'으로 승화시켜 나갈 것이다.

나는 그간 충청북도지사를 맡아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을 도민과 함께 이뤄 오면서 우리 충북도민은 참으로 대단하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일단 하자고 마음먹으면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성취해내는 모습과 과거의 조용하고 소극적인 지역의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이제는 자신감과 열정으로 위대한 일을 이뤄내는 '으뜸도민'이 한없이 자랑스럽기만 하다.

이제 이러한 성취감과 자신감으로 무장한 우리 충북도민은 인류의 오랜 꿈인 '풍요롭고 무병장수하는 삶'을 현실화하기 위해 열정을 불사르고 있다. 개인의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과 환경적 · 사회적 · 문화적 측면에서의 '건강'을 함께 추구하고 있다. 우리 모두의 건강한 나라를 '바이오토피아 충북'을 통하여 만들어 가기를 소망해 본다. 건